

여성의 대상관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이 민 경¹⁾

이 지 연²⁾

김 아 름³⁾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상관계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수도권 일대에 거주하는 여성 총 516명을 대상으로 대상관계 수준(OR-Inventory), 우울(BDI), 부적응적 완벽주의(APS-R) 척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대상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관계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대상관계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모두 우울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했다. 셋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대상관계수준과 우울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대상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 있어서 우울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여성 개인의 대상관계를 이해하고 대상관계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담적 개입을 할 것을 시사하며, 나아가 우울의 이면에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매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주요어 : 성인 여성, 대상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매개효과

* 본 연구는 이민경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 교신저자 :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E-mail: becoming@incheon.ac.kr)

3)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인턴

I. 서론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여성 우울의 유병률은 10~25%로 남성의 5~12%보다 두 배 높다고 한다(권석만, 2000; 보건복지가족부, 2006; McGrath, Keita, Strickland, & Russo, 1990; Nolen-Hoeksema, 1990). 200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항우울제의 투여횟수가 남성보다 2.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요 우울증의 평생 발생률은 남자보다 여자가 2.3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경향신문, 2008).

청소년 후기부터 나타나는 여성 우울의 상대적인 증가는 그간 여성의 생의 주기에 따라 ‘월경 전 우울’, ‘산후 우울’, ‘주부 우울’ 또는 ‘폐경 우울’ 등의 용어로 불리우며 생리적 특성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신경림, 2001). 그러나 취업,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인기 여성은 높은 생활스트레스에 따른 우울감에 쉽게 노출되는 반면(박경, 2003), 우울의 부정적 영향은 이 시기 확대된 역할에 따라 보다 다양한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실제로 여성의 우울증상이 부모-자녀관계를 약화시키고 부부간의 갈등 및 불화(Roberts, Gotlib & Kesse, 1996), 부부간의 관계 불만족(Burns, Sayers, & Moras, 1994) 등 친밀한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보고된다(Barnett & Gotlib, 1988; Gotlib & Hammen, 1992), 따라서 친밀감과 생산감 획득을 통해 자아감을 형성해가는 성인기 여성에게 있어 우울이 어떤 맥락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발병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여성의 생리적 특성 이외에도 남성 권력이 보다 주도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수동성, 자기희생, 자기비하, 자신감의 결여 등 전통적인 여성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하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김혜은, 박경, 2003; Small, Gessner, Ferguson, 1984). 특히 관계적 자아 이론가들(self-in relation theorists)은 분리되고 독립된 존재로 자신을 이해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관계적인 존재로 자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여성의 여러 심리적 부적응을 여성이 맺는 관계성의 질에 초점 맞추어 살펴볼 것을 제안해왔다(Jack, 1991; Kaplan, 1986). 따라서 우울증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예, Beck(1967) 인지적 이론(cognitive theory), Seligman(1975)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learned helplessness theory), 귀인 이론(attributional theory) 등) 중에서도 애착을 성장의 주요자원으로 보는 대상관계관계 이론은 여성 우울과 관련된 맥락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여성의 우울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대상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여성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 우울을 설명하는 매개변인을 밝히는 것은 향후 여성 우울에 대한 이해와 치료적 개입에 함의를 줄 것이라 기대된다.

대상관계이론이란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 즉 대상표상(object representation)을 형성하는 과정과 표상의 특질에 따라 인간의 성격 구조가 발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

에 따르면 발달초기 부모(중요대상)와의 대인관계 경험은 내면화 과정을 거쳐 한 개인의 독특한 대상관계로 형성되며 이 내적 대상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방식을 결정하는 심리내적 구조로 기능한다(Horner, 1982). 이 구조는 자기와 타인을 지각하는 인지적 구조인 동시에, 자기와 타인에 관해 긍정 혹은 부정성을 띠는 정서적 반응 양식을 결정하며 관계에 정서를 투자하는 능력으로 규정되기도 한다(김병석, 1999).

대상관계차원에서 봤을 때 우울은 초기 중요대상에 대한 실망 및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Abraham, 1949; Freud, 1917; 이인숙, 이지연, 2009에서 재인용), 즉 우울은 유아기, 과거, 현재 시기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나 대상관계를 상실함으로써 심리적 좌절, 강박, 불안 등이 외현적으로 표현된 형태이며, 깨진 대상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실을 막기 위한 몸과 마음의 대처방식이자 보호적 기제이고, 대상상실에서 오는 고통을 통제하기 위한 방어적 일종이라는 설명이다(최범식, 노명래, 1995; Abraham, 1916, 1924; Peter & Biesecker, 2000). 이처럼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실망이나 상실에 의해 유발된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향해짐으로써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 이 정서는 우울역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영아는 엄마와의 애착관계를 기반으로 대상관계의 원형을 형성하고 이 관계의 양상대로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되므로 초기에 단절된 애착관계는 후에 다른 사람과 적절한 애착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여 우울 취약성으로 발전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후에 경험하는 좌절이나 상실의 경험은 어린 시절의 외상적 경험을 되살리게 되어 우울 과정을 더욱 촉진시킨다(Abraham, 1924).

부모와의 관계와 우울증에 대해 연구한 Blatt과 Lerner(1983)에 따르면 우울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부모를 욕구 만족의 대상으로 여길 뿐, 가치나 감정과 같은 내적 속성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해 우울한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내적인 표상이 덜 완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Blatt(1976; 1983)은 대상관계의 손상 수준에 따라 우울을 의존적 우울과 자기비난적 우울로 나눌 수 있음을 밝혀 성인들의 우울증이 아동초기 경험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그는 안정적인 대상관계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주로 의존과 관련된 우울로, 중간 정도의 안정성을 지닌 사람은 자기비난과 관련된 우울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대상관계 경험은 주로 우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Blatt & Lerner, 1983). Blatt의 분류에 따라 두 가지 우울한 집단의 대상관계 특징을 연구한 박부형(2000)에 따르면 의존적 우울 경향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적 집착으로 인한 자기개념의 결핍현상을 보이고, 자기비난적 우울을 보이는 사람은 대상의 사랑이나 인정을 못 받는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과도하게 높은 목표나 이상을 추구하며 이 두 유형 모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울증상이 초기 양육환경 및 주요 양육자와의 대상관계와 현재 대상관계 수준에 영향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 손상된 대상관계는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지도식이나 성격 구조 등을 통해 우울 취약성을 형성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때 취약성이란 적응적 요구를 다루기 위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관점에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취약성은 단지 자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원과 개인이 개입하는 패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는 점에서 대상관계로부터의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성격이란 내적 자기-타인 표상을 형성하는 초기우울의 소인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서 인지 이론 및 정신분석 이론은 완벽주의 및 완벽성을 강력 한 우울 취약성 변인으로 들고 있다. Ellis (1962)에 따르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들, 예를 들어, “인간은 자신을 모든 영역에서 가치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유능하고, 적합하며, 성취적이어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완벽하고, 확실하고, 정확해야하고 만일 그러한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결과는 비참해진다”와 같은 역기능적 신념들은 신경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도 우울은 어린 시절의 결핍이나 상실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연된 실패감과 죄책감을 낳게 하는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유성은, 권정혜, 1997에서 재인용).

완벽주의를 주로 부정적인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바라봤던 초기 연구뿐만 아니라(예, Burns, 1980) 완벽주의의 긍정적 차원에 주목하여 다차원적으로 분류한 연구에서도(예, Hamachek, 1978),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Rice, Ashby, & Slaney, 1998), 개인 기준 완벽주의와 자기비평 완벽주의(Dunkley

& Blankstein, 2000),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 염려 완벽주의(Blankstein & Dunkley, 2002) 등 완벽주의의 부정적 차원은 우울, 자살 사고, 불안, 스트레스,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장애 및 고통과 일관되게 높은 상관관을 보였다(Blatt, 1995; Rice, Ashby, & Slaney, 1998).

구체적으로 우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상관이 매우 낮거나 없는데 반해, 완벽주의자들은 높은 상관관을 보여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더 쉽게 우울해했고(Hewitt & Dyck, 1986) 완벽주의는 우울, 좌절감과 관련되어 있어 이 관계는 시간을 두고 다시 측정했을 때도 여전히 정적 관련(Chang & Rand, 2000)을 보여 완벽주의가 우울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이때 완벽주의적 개인이 경험하는 우울은 자기가치(self-worth), 자기비판(self-criticism)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신을 호되게 꾸짖고 스스로를 공격하며 강렬한 죄책감, 수치, 실패, 무가치감이 동반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Blatt, 1995).

국내의 완벽주의 연구에서도 우울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왔다. 전체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을 보이고(홍혜영, 1995),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가 높은 집단의 우울, 걱정이 유의미하게 높으며(조윤수, 2000),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05).

한편, 다양한 병리적 특성 및 부적응적인 현상과 관계가 깊은 완벽주의가 어떻게 형성

되는지를 밝히려는 시도 역시 계속되어 왔는데, 학습 이론적 접근에서는 완벽주의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부터 나온 학습된 행동이라고 본다(Pacht, 1984). Missildine(1963)는 완벽주의적이고 요구가 많은 부모는 자신들의 성취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노력도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자녀들은 스스로에게도 만족할 줄 모르고 부모의 승인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된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완벽주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아(1997)에 따르면, 부모의 성취 지향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과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에, 부모의 적대적, 통제적 비합리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변영주(1994)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라고 지각된 집단의 자녀가 보다 높은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냄을 밝혔다(윤은정, 2000에서 재인용).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Cox, Enns와 Clara(2002)은 엄격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우울과 관련됨을 밝혔고, Randolph와 Dykman(1998)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완벽주의는 비판적인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완벽주의적인 부모의 양육방식과 우울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애착과도 관련이 깊다. 특히 불안정 애착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관련되어 있으며(Andersson & Perris, 2000; Rice & Mirzadeh, 2000), 구체적으로 불안애착과 회피 애착을 보

이는 사람들이 타인이 제시하는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수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lett, Hewitt, Mosher, Sherry, Macdonald & Sawatzky, 2001). 부모의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를 지각하고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주로 부모의 불인정, 비밀관적인 승인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의 양육방식이 통제적, 비판적, 요구적일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이는 부모에게 인정받거나 부모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욕구는 무시한 채 수행을 매우 중요시하게 되는 가운데, 자신의 실수에 대해 걱정하거나 행위를 의심하게 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발달시키게 된다(Rice, Lopez, & Vergara, 2005; Rice & Mirzadeh, 2000).

이처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엄격하고 통제적인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판적인 부모를 내사화한 것이라고 개념화할 때, 어린 시절 양육경험을 토대로 발달하는 대상관계 역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관련있을 가능성이 높다. Sorotzkin(1985)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신경증에서 드러나는 완벽주의와 자기에적 성격장애에서 드러나는 완벽주의로 구별되는데, 신경증적 완벽주의는 학습 또는 억압적 적대감의 결과로 생긴 가혹한 초자아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써, 자기에적 성격장애에서의 완벽주의는 웅대한 자기상(self-image)에 맞추고자 하는 시도로써 불확실한 자기와 대상의 표상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대상관계를 통한 초자아의 발달 과정 및 자기와 타인 표상의 발달 과정에서 완벽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며, 최근 우울성 성격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구분하고자 했던 Huprich 등의 연구에서도 두 증상 모두 완벽주의와 실수에 대한 불안, 부모의 비판과 공통적으로 상관있었는데 둘 다 낮은 대상관계 수준과 밀접하게 관계있었다(Huprich, Porcerelli, Keaschuk, & Binienda, 2005; Huprich, Porcerelli, Karana, & Kamoo, 2007). 이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상 역시 특정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그때그때의 독립된 반응에 한정되지 않고 성격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초기 양육환경 및 주 양육자와의 대상관계 및 현재의 대상관계 수준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족 내 유대와 조화, 책임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가 밀접하고(최인재, 2005) 부모의 비판을 내사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우울에 대한 대상관계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작업은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그동안 대상관계와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등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대상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완벽주의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모형 검증을 해본다면, 여성 우울을 이해하고 치료적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다각적 함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의 대상관계와 우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여성의 대상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의해 매개될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와 수도권일대에 거주하는 여성 51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누락된 경우나 무성의하게 답변한 자료를 제외한 505명의 설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2. 측정도구

대상관계 질문지 (OR-Inventory)

대상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ell, Billington, & Becker(1986)이 제작하고 박부형, 이영호(2004)이 타당화한 한국판 대상관계 질문지(OR-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Bellack, Hurvich, & Gediman(1973)에 의해 개발된 평가면접을 기초로 제작된 45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각 문항은 피험자들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예’와 ‘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으며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관계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불안정 애착(Insecure Attachment: IA), 사회적 무능력(Social Incompetence: SI), 소외(Alienation: ALN), 자아 중심성(Egocentricity: EGO)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정 애착(IA)은 대인관계에서의 고통스러운 정도를 측정하며 이 하위척도가 높게 나타난 피험자들은 거절에 예민하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동시에 버려짐(Abandonment)에 과민하여 관계의 상호성 및

자율성을 얻기 어려운 성향을 보인다. 사회적 무능력(SI)은 이성(異性)과의 상호작용에서 수줍음, 안절부절함, 불확실한 정도를 측정하며 이 하위척도가 높을수록 관계에서 반응이 없고 정서적으로 둔하며 특히 이성과의 관계가 당황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많다. 소외(ALN)는 기본적 신뢰의 부족, 가까운 관계 형성이 어려움,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친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무망감을 측정한다. 이 하위척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 의심, 경계심 및 소외감을 느끼며 누구와도 속마음을 공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중심성(EGC)은 다른 사람의 동기를 믿을 수 없으며 타인은 나와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중심적 목표를 위해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측정한다. 이 하위척도는 자기보호적이며 착취적인 태도, 참견이 많고 강요적이며 요구적인 태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Bell 등(1986)의 타당화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78~.90, 반분신뢰도는 .78~.90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부형, 이영호(2004)에서는 신뢰도(Cronbach α 계수) .84, 반분신뢰도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완벽성향 척도(Almost Perfect Scale-Revised: APS-R)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완벽성향 척도(Almost Perfect Scale-Revised)를 사용하였다. 완벽성향 척도(APS-R)는 Slaney와 Johnson(1992)이 개발한 APS(Almost Perfect Scale)에 Slaney, Rice, Mobley, Trippi와 Ashby(2001)가 불

일치(Discrepancy) 하위 척도를 추가하여 개정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장애경(2006)에서 사용된 완벽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완벽성향 척도(APS-R)는 완벽주의의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높은 기준(high standard), 정돈(order), 불일치(discrepancy)의 세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높은 기준과 정돈 하위요인은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불일치 하위요인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불일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때 불일치란 높은 기준과 지각된 자신의 실제 성취간의 불일치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Likert식 7점 척도로 평정되며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Slaney(1995)의 연구에서 ‘불일치’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84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86로 나타났다.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eck, Ward, Mock와 Erbaugh(1961)이 개발하고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1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로 Beck(1967)의 연구에서 우울한 정도를 측정하는데 타당함을 보인 이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울 척도이다.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되며 총점은 0점에서 63점 범위로, 9점 이하는 우울하지 않는 수준, 10~15점은 가

벼운 우울증, 16~23점은 우울증, 24~63점은 중한 우울증으로 구분한다(Beck, 1967). 이영호와 송종용(1991)의 연구에서 일반인의 경우, α 계수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각 .78, .75였고, 우울환자의 경우 α 계수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여성의 대상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관계 수준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대상관계 수준이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대상관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우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빈도(%)	M(SD)	F값
20대	109(21.6)	27.86(6.44)	.31
30대	211(41.8)	28.58(8.04)	
40대	143(28.3)	27.93(7.43)	
5~60대	42(8.3)	29.43(9.61)	

* $p < .05$

우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_{(3.488)} = .31, n.s.$).

2. 기술통계치 및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기초분석으로써 각 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치를 구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대상관계수준 하위변인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상관관계를 보면 불안정 애착($r = .45, p < .01$), 소외($r = .37, p < .01$)는 중간 정도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무능력($r = .29, p < .01$)과 자아중심성($r = .21, p < .01$)과는 유의한 낮은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불안정애착과 소외, 사회적 무능력, 자아중심성이 높을수록(대상관계가 나쁠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상관계수준 하위변인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소외($r = .52, p < .01$)는 높은 정도의 정적상관을, 불안정애착($r = .42, p < .01$)은 중간 정도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무능력($r = .26, p < .01$)과 자아중심성($r = .27, p < .01$)과는 유의한 낮은 정도의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소외와 불안정애착, 사회적 무능력, 자아중심성이 높을

표 2.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N=505)

		대상관계수준					6	7
		1	2	3	4	5		
대 상 관 계 수 준	1. AI	1						
	2. SI	.33**	1					
	3. ALN	.36**	.28**	1				
	4. EGC	.48**	.05	.16**	1			
	5. 전체	.88**	.63**	.59**	.56**	1		
	6. MF	.45**	.29**	.37**	.21**	.49**	1	
	7. DP	.42**	.26**	.52**	.27**	.52**	.46**	1
	평균	2.28	1.48	.66	.76	5.16	38.70	27.99
	표준편차	1.44	.95	.64	.61	2.57	11.29	7.46

* $p < .05$, ** $p < .01$

AI 불안정애착, SI 사회적무능력, ALN 사회적 소외, EGC 자아중심성, MF 부적응적완벽주의, DP 우울

수록 보다 우울하다고 할 수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우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의한 중간정도의 정적상관($r = .46$, $p < .01$)을 보였다.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보다 우울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 대상관계수준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대상관계수준 하위변인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을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대상관계수준에 의해 25.9%의 설명력을 가지며, 대상관계수준의 하위변인 중 불안정애착($B = 2.61$, $p < .001$)과 사회적 무능력($B = 1.40$, $p < .01$), 소외($B = 3.83$, $p < .001$)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유의하게 예

언하였다. 그러나 자아중심성($B = .12$, $p > .05$)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설명하는 효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불안정애착($\beta = .33$, $p < .001$), 소외($\beta = .22$, $p < .001$), 사회적 무능력($\beta = .12$, $p < .01$)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대상관계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상관계수준 하위변인이 우울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상관계수준은 우울에 대해 32.3%의 설명력을 가지며 대상관계수준의 하위변인 중 불안정애착($B = .97$, $p < .001$), 소외($B = 4.67$, $p < .001$)와 자아 중심성

표 3. 대상관계수준 하위변인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예언변수	B	SE	Beta	t	R ² (Adj- R ²)	F
부적응적 완벽주의	불안정애착	2.61	.39	.33	6.70***	.259(.252)	41.59***
	사회적 무능력	1.40	.50	.12	2.78**		
	소외	3.83	.76	.22	5.05***		
	자아중심성	-.08	.84	-.01	-.09		

표 4. 대상관계수준 하위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예언변수	B	SE	Beta	t	R ² (Adj- R ²)	F
우울	불안정애착	.97	.25	.18	3.84***	.323(.317)	56.22***
	사회적 무능력	.67	.33	.08	2.05*		
	소외	4.67	.49	.40	9.56***		
	자아 중심성	1.32	.55	.10	2.39*		

* $p < .05$, ** $p < .01$, *** $p < .001$

($B=1.32$, $p<.05$), 사회적 무능력($B=.67$, $p<.05$)이 우울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우울을 설명하는 효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소외($\beta=.40$, $p<.001$), 불안정애착($\beta=.18$, $p<.001$), 자아중심성($\beta=.10$, $p<.05$), 사회적 무능력($\beta=.08$, $p<.05$)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대상관계수준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기본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VIF, Tolerance 값을 구하였다. VIF는 1.27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치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고, Tolerance는 .50으로 다중공선성 기준치 .1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자 Durbin-Watson계수를 살펴본 결과 2.07로 가정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상관계수준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매개효과를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으로부터 독립변인의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두 변인 사이의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 매개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을 때를 완전매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부분매개라고 한다. 대상

표 5. 부정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단계	모형	B	SE	β	t	R^2 (Adj-R ²)	ΔR^2	F
1	대상관계 → 부정응적 완벽주의	2.15	.18	.49	12.29***	.239(.238)		15.96***
2	대상관계 → 우울	1.50	.12	.51	12.84***	.258(.256)		161.77***
3	1) 대상관계 → 우울	1.11	.13	.37	8.46***	.311(.308)	.053	105.70***
	2) 부정응적 완벽주의 → 우울	.18	.03	.27	6.10***			

*** $p < .001$

관계수준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정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검토해본 결과(표 5) 첫째, 독립변인인 대상관계수준이 매개변인인 부정응적 완벽주의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2.15$, $p < .001$), 둘째, 대상관계수준이 종속변인인 우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1.50$, $p < .001$). 마지막으로 대상관계수준과 부정응적 완벽주의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대상관계수준과 부정응적 완벽주의 모두 우울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대상관계수준의 β 계수가 다소 떨어지나 여전히 유의미하기 때문에($B=1.11$, $p < .001$), 부정응적 완벽주의는 대상관계수준과 우울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관계수준은 우울 변량의 25.8%를 설명하였으나 대상관계수준과 부정응적 완벽주의를 함께 포함한 모델은 우울 변량의 31.1%를 설명하였다. 이로써 대상관계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정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하는 시도의 하나로, 우울을 설명하는 이론 중 대상관계 이론에 주목하여 대상관계 수준과 부정응적 완벽주의, 우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상관계 수준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정응적 완벽주의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인 대상관계와 종속변인인 우울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대상관계 측정치가 높을수록 대상관계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대상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상관계 수준과 우울 취약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기존의 주장(Blatt 등, 1976; Huprich 등, 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상관계 수준의 하위척도와 우울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 정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불안정 애착과 소외 차원은 각각 거절과 버림받는 데 대한 과민하며 사랑과 인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는 성향 및 기본적인 신뢰가 부족하고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우며 다른 사람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하는 성향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상관계 하위요인 중에서도 주로 관계에서의 소외나 불

편감, 거절과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 등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낮은 상관으로 나타난 하위 변인은 이성관계에서의 수줍음과 불확실한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무능력과 자신의 목표를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적인 자기중심적 태도를 반영하는 자아중심성 하위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때 사회적 무능력 하위요인의 경우, 이인숙, 이지연(2009)에서 여성의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상관정도가 큰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던 변인이다. 사회적 무능력 하위요인이 주로 이성관계에서 안전부절 못하고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이 30대 이상으로, 45% 이상이 20대로 구성된 이인숙, 이지연(2009)과의 표집 대상이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볼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소외가 연령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른 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나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완벽주의도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즉 높은 기준과 자신이 지각한 실제 성취간의 불일치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클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자기의 모습과 이상적으로 되고자하는 이상적 자기간의 격차인 불일치가 우울감과 관련된다고 한 Higgins(1987)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대상관계 척도와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대상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상관계 하위척도 중에

서도 불안정 애착과의 상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상관관계가 높았던 소외 차원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보통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대한 관심과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관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완벽주의가 불안정 애착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Andersson & Perris, 2000; Flett, Hewitt, Mosher, Sherry, Maodonald & Sawatzky, 2001; Rice & Mirzadeh, 2000)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불안정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부모가 자신의 정서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지지기반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 스스로 가치 있게 느끼고 타인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완벽해지지 않으면 수용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대상관계 수준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대상관계 수준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우울에 대한 설명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관계 수준이 우울을 설명하는 변량은 25.8%였으나 대상관계 수준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함께 포함한 모델은 우울 변량의 3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상관계 수준이 직접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Blatt(1976)에 따르면 자기 비난적 우울에 속

한 사람들은 의미있는 타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랑이나 수용, 인정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과도한 목표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이때 과도한 성취욕구나 완벽주의는 사랑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자기비난과 죄책감은 과편화된 대상표상 부분들과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우울한 내담자를 만나는 경우, 내담자의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대상표상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통해 우울감을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관계 중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소외 차원과 사랑과 인정에 집착하는 불안정애착 차원이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안전한 환경이 되어주고 치료적 관계 경험을 통해 재양육을 제공함으로써 대상항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의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주양육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대상관계는 비교적 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단기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대상관계에 대한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단기 상담에서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에 대한 작업을 통해 내담자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고, 중, 장기 상담에서도 대상관계에 대한 작업과 더불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대한 개입이 내담자 우울을 다루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성인기 여성의 우울을 대상관계 이론에서 관계적 차원을 통해 조망해보고, 자

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대상관계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양적으로 확인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상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증함으로써 여성 내담자의 우울에 대한 치료전략을 다각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기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와 수도권일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들 집단의 특수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세분화된 배경을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관계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우울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집 대상의 연령에 따른 우울 차이만을 검증해보았으나,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성인기 여성의 우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여성의 우울을 이해하는데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결혼여부 및 결혼유지기간 등은 성인 여성의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각 변인들의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제한점이 있다.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자기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방어적 태도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 외에 보다 신뢰로운 방법을 통해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인다. 특히 우울 척도는 현재 상황에서 억압, 부인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자각될 때 고통스러운 경험이 유발되는 정서이므로 답변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단적 연구나 투사검사, 개인적 면담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여성의 대상관계가 우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연구하였는데 그 밖에도 여러 다른 변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이외에도 다른 상황적 요인과의 관계나 연령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더욱 축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상관계와 우울의 관계를 우울증상에 한정해서 살펴보았을 뿐, 다양한 우울증상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못하였다. 우울성 성격장애, 또는 기분부전장애와 주요우울증 각각의 증상과 대상관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추후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0). *우울증*. 서울: 학지사.
- 김병석 (1999). 관계문제로서의 정서행동장애: 대상관계이론적 접근. *특수교육학연구*, 34(2), 257-275
- 김선정 (2007).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우울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2005).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 (1997). *부모와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과 심리사회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15-26
- 김진숙 (2001). 대상관계이론의 상담적 적용에 관한 고찰. *상담학연구*, 2(2), 327-344.
- 김혜은, 박 경 (2003). *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11-524
- 박 경 (2003).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81-593
- 박부형 (2000). *자기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분리-개별화 수준 및 대상관계 특징*.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부형, 이영호 (2004). *한국판 대상관계질문지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1065-1084
- 변영주 (1994).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스트레스의 상호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림 (2001). *한국여성의 우울증상 실태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31(3), 391-400
- 유성은, 권정혜 (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67-84
- 윤은정 (2000). *애착과 성취동기가 완벽주의 성*

- 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혜, 장춘자(1992). 중년기 여성의 폐경 경험. *모자간호학회지*, 2(1), 70-86.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인숙, 이지연(2009). 여성의 대상관계, 수치심, 자기침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1951-1969.
- 이지연, 임성문 (2006).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우울과의 관계: 낙관성과 비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 488-489.
- 장애경 (200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수준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윤수 (2000). 완벽주의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범식, 노명래 (1995). 우울 신경증 대학생들의 RPS 체험적 심상 시각현상의 특징과 의미. *순천향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2집, 93-111.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 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59-1076.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raham. K. (1916). *The first pregenital stage of the libido*. In D. Bryan & A. Strachey(Trans.) In selected papers on psychoanalysis. London: Hogarth Press.
- Abraham. K. (1924). *A short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libido*. In D. Bryan & A. Strachey(Trans.) In Selected papers on psychoanalysis. London: Hogarth Press, 1927.
- Abraham. K. (1949). Notes on the psycho-analytical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manic-depressive insanity and allied conditions. In K. Abraham (Eds.), *Selected papers of Karl Abraham*. London: Hogarth.
- Andersson, P., & Perris, C. (2000). Attachment style and dysfunctional assumptions in adult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 47-53.
- Bamett, P. A., & Gotlib, I. H. (1988).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depression: Distinguishing among antecedents, concomitants, and conseq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04, 97-126.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Ward, C. H., Mock, J., Mendelson, M.,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 Bellack, L., Hurvich, M., Gediman, H. K. (Eds.), (1973). *Ego functioning in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Bell, M., Billington, R., & Becker, B. (2006).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object relations: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ial invaria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5), 733-741.
- Blankstein, K. R., & Dunkley, D. M. (2002). Evaluative concerns, self-critical and personal

- standards perfectionis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ategy.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pp. 285-31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50, 1003-1020.
- Blatt, S. J., Brenneis, C.J., & Schimek, J. G. (1976). Norm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ical impairment of the object on the Rorschac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64-373.
- Blatt, S. J., & Lerner, H. (1983).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of object repres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7-28.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1.
- Burns, D. D., Sayers, S. S., & Moras, K. (1994). Intimate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s there a causal conn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039-1042
- Chang, E. C. (2002). Examining the link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ocial problem solving as a buff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581-595.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29-137.
- Cox, B. J., Enns, M. W., & Clara, I. P. (2002).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perfectionism in clinically distressed and college student samples. *Psychological Assessment*, 14, 365 - 373.
- Drew, C. J. (1980). Introduction to designing and conducting research. St. Louis, Mo: Mosby.
- DSM-IV.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IV. New York: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Dunkley, D. M., & Blankstein, K. R. (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s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713-730.
- Elli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Secaucus, New Jersey: Lyle Stuart.
- Enns, M. W., Cox, B., & Clara, I. (2002).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Developmental origins and association with depression pron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921-935.
- Feather, N. T. (1969).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valence of success and failure in relation to initial confidence and perceive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129-144.
- Flett, G. L., Hewitt, P. L., & Dick, D. G. (1989). Self-oriented perfectionism, neuroticism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731-735.
- Flett, G. L., Hewitt, P. L., Mosher, S. W., Sherry,

- S. B., Macdonald, S., & Sawatzky, D. L. (2001).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attachment sty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Tronto, Ontario, Canada.
- Flett, G. L., Hewitt, P. L., & Singer, A. (1995). Perfectionism and parental authority styles. *Individual Psychology, 51*, 50-60.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nsi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4*, 119-12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 O., Steketee, G., Cohn, L., & Griess, K. (1994). Personality traits in subclinical and non-obsessive-compulsive volunteers and their par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2*, 47-56.
- Freud, S. (1917). Mourning and melancholia (Ed. and Trans.).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vol. 14), London: Hogarth Press.
- Gotlib, I. H. (1992). Interpersonal and cognitive aspects of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 149-154
- Gotlib, I. H., Whiffen, V. E., Wallace, P. M., & Mount, J. H. (1991).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postpartum depression: Factors involved in onset and recover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122-132.
- Gove & Tudor. (1973). Adult sex roles and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4*, 812-835.
- Greengerg, J. R., & Mitchell, S. A. (199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은 1983에 출판).
- Grzegorek, J. L., Slaney, R. B., Franze, S., & Rice, K. G. (2004). Self-criticism, dependency, self-Esteem, and grade point average satisfaction Among clusters of perfectionists and nonperfection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192-200.
- Hamachec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witt, P. L., & Dyck,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137-142.
- Hewitt, P. L., & Flett, G. L. (1989).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Canadian Psychology, 30*, 339.
- Hewitt, P. L., & Flett, G. L. (1990).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5*, 423-438.
- Hewitt, P. L., & Flett, G. L. (1991a).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98-101.
- Hewitt, P. L., & Flett, G. L. (1991b). Perfectionism of self and socia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 with psychology. *Journal of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olle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 94-103.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orner, A. J. (1982). *Object relations and the developing ego in therapy*. New York: Jason Aronson.
- Huprich, S. K., Porcerelli, J. H., Binienda, J., Karana, D., Kamoo, R. (2007). Parental representation, object rel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depressive personality disorder and dysthymi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8), 2171-2179.
- Huprich, S. K., Porcerelli, J. H., Keaschuk, D., & Binienda, J. (2005). Functional health status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ve personality, dysthymia and major depressive symptoms: preliminary findings. *Depression and Anxiety*, 67, 1-9.
- Ivey, A. (1989). *Object relations: an introduc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pp.128-183).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aplan, A. (1986). The "self-in-relation": Implications for depression in wome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3, 234-241.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cGrath, E., Keita, G. P., Strickland, B., & Russo, N. E (1990). *Women and depression: Risk factors and treatment issu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iller, L., Warner, V., Wickramaratne, P. & Weissman, M. (1999). Self-esteem and depression: Ten-year follow-up of mothers and offspring.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2, 41-49.
- Missildine, W. H. (1963).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New York: Simon & Schuster.
- Nolen-Hoeksema, S. (1987). Sex difference in unipolar depression: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01(2), 259-282
- Nolen-Hoeksema, S. (1990).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Peters, K. F., Biesecker, L. G. (2000). An opportunity for genetic counseling intervention: Depression in parents of individuals with Proteus syndrome. *Journal of Genetic Counseling*, 9, 161-171.
- Randolph, J. J., Dykman, B. M. (1998). Perceptions of parenting and depression-proneness in the offspring: Dysfunctional attitudes as a mediating mechanism. *Cognitive*

- Therapy and Research*, 22(4), 377-400.
- Rehm, L. P. (1977). A self-control model of depression. *Behavior Therapy*, 8, 787-804.
- Rice, K. G., Aldea, M. A. (2006). State Dependence and Trait Stability of Perfectionism: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2), 205-212.
-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04-314.
- Rice, K. G., Lopez, F. G., & Vergara, D. (2005). Parental/social influences on perfectionism and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4), 580-605.
- Rice, K. G., & Mirzadeh, S. A. (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38-250.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10-320.
- Sato, T., Sacado, K., Uehare, T., Narita, T., Hirano, S., Nishioka, K., & Kasahara, Y. (1998). Dysfunctional parenting as a risk factor to lifetime depression in a sample of employed Japanese adults: Evidence for the 'affectionless control' hypothesis. *Psychological Medicine*, 28, 737-742.
- Seligman, M. E. P. (1975). *Hoplessness: On Depression death*. San Francisco: Freeman, W. H.
- Slaney, R. B. (1995). *The Almost Perfect Scale-Revised*.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laney, R. B., & Johnson, D. G. (1992). *The Almost Perfect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laney, R. B., Mobley, M., & Trippi, J. T., Ashby, J. S., & Johnson, D. G. (1996). *The Almost Perfect Scale-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ark Campus.
- Slaney, R. B., Rice, K. G., Mobley, M., Trippi, J., & Ashby, J. S. (2001). The almost perfect scale-revised.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 130-145.
- Sorotzkin, B. (1985). The quest for perfection: Avoiding guilt or avoiding shame? *Psychotherapy*, 22, 564-571.
- Wenzlaff, R. M., & Bates, D. E. (1998). Unmasking a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How lapses in mental control reveal depressive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59-1571.
- Whitley, B. E., Mchugh, M. C., & Frieze, I. H. (1986). "Assessing the theoretical models for sex differences in causal attributions of success and failure." In the Hyde & Linn (Eds.), *Psychology of Gender: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102-35.
- Winnicott, D. W. (1953). Transitional objects and

- transitional phenomen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4, 89-97.
- Winnicott, D. W. (1960). The theory of the parent-infant relationship. In the *Maturational Pres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pp.37-55.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Winnicott, D. W. (1971). *Playing and Reality*. New York: Basic Books.
- Winnicott, D. W. (1997). 놀이와 현실[*Playing and Reality*].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원전은 1971에 출판).
- Zaitsoff, S. L., Geller, J., & Srikaneswaran, S. (2002). Silencing the self and suppressed anger: Relationship to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t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0(1), 51-60.
- 1 차원고접수 : 2010. 01. 07.
수정원고접수 : 2010. 02. 15.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3.

The Effects of Women's Object Relations upon their Depression with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Mediating Factor

Lee, Min-Kyoung

Inche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Lee, Jee-Yon

Dept of HRD
University of Incheon

Kim, Ah-Reum

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women's object relations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on their depression, which has a huge influence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 total of 505 females living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the National Capital region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object relation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se factors. Object relations provided significant explanations in regards to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Object relations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provided significant explanations in regards to depression. Maladaptive perfectionism ha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object relations level and depression. In short, it is apparent that women's object relations can have noticeable indirect effects upon depression via maladaptive perfectionism in addition to direct effects. This suggests that counseling interventions to help women deal with depression should attempt to understand their individual object relations and increase their object relations levels. Such counseling interventions should also keep in mind the potential combined effects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Key words : object relations, maladaptive perfectionism, depression